

제12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 (1) : Lordship과 교제

서론

1.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큰 차이점은 ‘은혜’이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는 호의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롬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다. 신앙성숙은 하나님 백성으로 그분의 다스림에 잘 순종하는 것에 있다.

살전2:12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I.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이다.

1. 개념 정리

- 1)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내세에 좋은 곳에 가라는 덕담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라는 의미
- 2)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고 있습니까?

2. 그릇된 이해

- 1) 일제 35년의 탄압, 한국 전쟁, 가난의 상황: 기독교는 내세 지향적, 율법주의적인 성향 갖게 됨
- 2) 경제 성장 과정: 은사와 감정적 신앙 체험 중시, 현세의 축복 강조, 교회 건축에 헌신, 상업화, 대형화

3.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의 주되심(Lordship)을 인정하는 삶

- 1) 의미: 내 삶의 소유권과 결정권은 주님께 있다(롬14:8)

롬14: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 2) 세상에서의 성공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음의 표지가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요셉, 모세, 다윗의 삶을 구기셔서 무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섬기게 하셨다

II.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교제하며 그 분을 알아가는 삶이다.

1. 신앙생활은 왕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다 (요17:3, 고전1:9)

- 1)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는 공예배로 또한 개별적인 산 예배로 하나님과 사귀을 갖는다.

요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고전1:9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 2)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분과 교제를 나누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객관적으로 보여 준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롬8:14).

롬8: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2.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롬8:29).

롬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나를 알게 된다.

1)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고후5:17)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는 비성경적인 말이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고후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특권을 보장 (벧후1:3, 고전2:12)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될 때 내게 주신 신분과 특권을 알고 누리게 된다. 예) 장군이 되면 변하는 것들

벧후1:3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고전2: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3)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특권과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주신다.

신앙은 Doing(함)의 문제가 아니라, Being(됨)의 문제이다.

4. 경건의 시간을 습관화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

